



명 남 재 | (주)경동엔지니어링
수자원부 전문
(hyspe@lyco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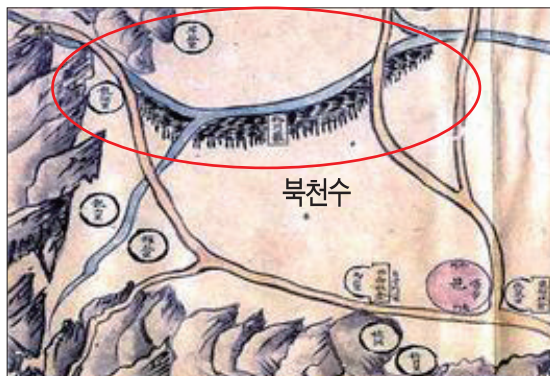
곡강천의 수해방지림, 북천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북천수

문화재청은 당산숲, 비보숲, 방재숲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 숲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체계적으로 조사한 「마을 숲 문화재 자원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 북천수를 200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북천수(北川藪)는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곡강천(曲江川) 2.5km 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숲이다. 수(藪)는 늪, 덩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북천수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흥해현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도 북천수 조성유래에 대한 기록이 있고, 1938년 작성된 「조선의 임수」에도 기록되어 있는 등 예전부터 유명한 숲이며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숲 중 3번째로 긴 숲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조선 철종때 흥해군수 이득강(興海郡守 李得江)이 읍성과 흥해의 진산인 도음산(道陰山 383.2m)의 맥을 보호하고 북천(北川)에 독이 없어 장마만 지면 수해가 나는 것을 보고 군민을 동원하여 북천제방을 쌓고 4리에 뻗친 북천수를 조성하였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흥해읍의 수해방지와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풍수상 흥해읍의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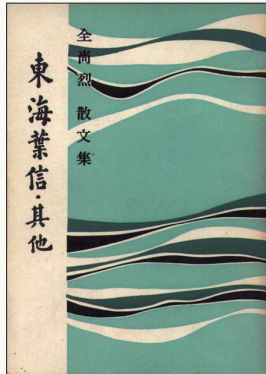


〈그림 1〉 흥해현지도, 읍치 북쪽을 흐르는 곡강천을 북천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북천수가 빼곡히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인 도음산의 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숲으로 역사적 유래가 깊은 숲이다. 또한 정월 보름날 숲의 제방에서 동제(洞祭)를 지내고 이 날 오후 3시 마을 앞산에서 산제(山祭)를 지내며 전년도에 묻어둔 간수(소금물)병에 담긴 간수의 상태를 보고 그 해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풍습을 간직하였던 숲이다. 문화재청은 북천수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수해방지림 등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북천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문학을 통해 바라본 북천수 모습

현대시인 전상렬(全尙烈)이 1972년 발표한 산문집 「동해엽신, 기타」 중 세로송림(細路松林)에 보면 북천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1972년 당시에는 흥해서부초등학교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주민들에게 공원으로 제공되었다. 조선 철종 때 흥해군수 이득강이 조성한 북천수는 폭 50m에 10리에 걸쳐 심어져 있었다. 140년 동안 우람한 거목으로 자라나 하늘을 덮고 철새들이 서식하는 장관을 이루었지만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전쟁물자에 사용하기 위하여 북천수를 벌목함으로써 이득강이 심었던 북천수는 영원히 사라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 아픔을 이겨내고 솔씨가 자라나 현재의 북천수가 되었으니 이 나무의 수령이 불과 60~70년 정도이다. 일본에 의하여 황폐화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와 비슷한 운명을 가지고 있어 북천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그림 2〉 전상렬 산문집

세로송림(細路松林)

하오(下午) 한 때를 혼자서 곡강천(曲江川) 제방을 거닌다.
산이 좋아서 가끔 산을 오르내리는 나는 평지가 지루하지



〈그림 3〉 흥해서부초등학교 정문에서 바라본 북천수. 북천수가 교정을 둘러싸고 있어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마는 이렇게 강둑을 거닐라치면 마냥 즐겁기만 하다. 〈중략〉 ... 송림(松林)은 고가(古家)의 서까래 크기만한 나무들이 약 50m 폭으로 10리에 뻗쳐있다. 이것은 우리 학교의 재산이지마는 이곳 주민들의 공원이기도 하다. 원래는 곡강교에서부터 이 일대 백사지 전역에 걸쳐 우람한 거목이 하늘을 덮고 철새들이 서식하는 장관을 이룬 풍치림(風致林)이었으나, 일정 말의 마지막 발악이 황량폐허(荒涼廢墟)로 만들었고 광복 후 다시 솔씨가 돌아나서 이렇게 연목거리로 자란 것이라 한다.

이 松林의 서쪽 끝에 흥해서부국민학교가 아담한 이층 건물로 자리 잡고 있다. 李成雨교장과 일배주 나누고 황혼에 나서면 되가리 무논에 성큼성큼 목을 뺐던 황새 떼도 어디론지 날아가 버리고 장기 메고 돌아가는 농부의 등 뒤에서 개구리 소리 갈갈거리는 들길을 뒀 그리 바쁠 것도 없구먼. 시간은 어차피 人生을 적당한 위치에 날라다 줄테니까.

지금도 북천수 서쪽끝에는 흥해서부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주민들이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흥해서부초등학교는 학교답장대신 북천수가 둘러싸여 있어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곡강천이 실어나르는 흥해의 역사

곡강천은 포항시 신광면 및 흥해읍을 거쳐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신광면과 흥해읍은 신라시대부터 매우 중요한 요지로서,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해로 나가야 하는데, 신광면과 흥해읍이 주요 교통요지로 성장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신라시대에는 이 지역에 강성한 세력 집단이 자리 잡았다.

삼국시대에는 퇴화군(退火郡), 통일신라시대인 경덕왕 16년(757)에는 의창군(義昌郡)으로 개칭하고, 고려 태조 13년(930)에는 흥해군(興海郡)으로 개명하였다. 고려 현종 9년(1018년) 흥해군은 경주부에 내속되었다가 조선시대인 1895년에는 동래부에 내속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흥해군은 분면(分面)되고, 흥해면은 의창읍으로, 다시 흥해읍으로 개칭되다

가 1995년 포항시에 편입되기에 이른다. 이렇듯 흥해군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곳 지역이 신라에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신광면에 위치한 영일냉수리신라비(迎日冷水里新羅碑)와 냉수리고분군(冷水里古墳群), 흥해읍에 위치한 포항중성리신라비(浦項中城里新羅碑)와 칠포리 암각화 등이 있다. 이중 영일냉수리신라비와 포항중성리신라비는 재산분쟁과 관련된 송사를 결정한 내용을 금석에 새겨 넣은 유물이다. 포항중성리신라비는 영일냉수리신라비보다 세워진 시기가 더 빠르지만 영일냉수리신라비의 발견이 더 빨라 현재는 영일냉수리신라비만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영일냉수리신라비는 1989년 3월 신광면 냉수리에서 발견된 신라 최고(最古) 비로 국보로 지정된 유물이다. 냉수리신라비가 세워진 시기는 지증왕 4년(503년)으로 추정되며, 비문 내용은 말추(末鄒)와 사신지(斯申支) 두 사람이 절거리(節居利)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중앙 정부에서는 지도로갈문왕(至都盧葛文王)을 의장으로 7인 회의에서 과거 두 차례의 소송을 근거로 절거리의 재물로 인정해주고, 상속자까지도 판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4) 영일냉수리신라비

포항중성리신라비는 2009년 흥해읍 중성리 도로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신라비이며 세워진 시기는 지증왕 2년(501년)으로 영일냉수리신라비보다 약 2년 더 빠르다. 비문내용은 모단별(인명으로 추정)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빼앗자 사건진상을 조사하여 본래 주인인 모단별에게 돌려주고, 향후 재론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냉수리고분군은 용천저수지 주변에 100여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6세기경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이곳이 신라시대 수도인 경주와 동해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요지로서 강력한 세력집단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영일칠포리암각화(迎日七浦里岩刻畵)는 바닷가에 위치한

곤륜산 서북쪽 기슭 바위에 새겨진 것으로 1989년부터 1994년 까지 발견하였다. 이 일대는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어 청동기시대에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제단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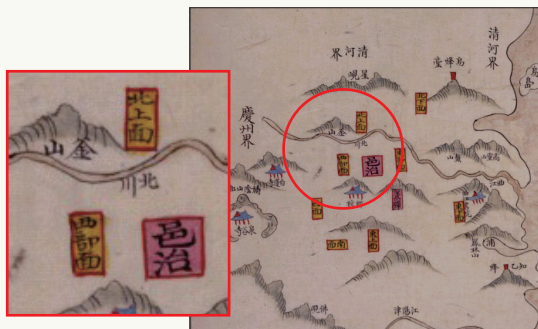
이렇게 곡강천 유역은 경주와 동해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요지뿐만 아니라 농경지가 매우 발달해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은 곳이나, 이로 인하여 왜구의 빈번한 출몰로 인하여 피해도 그만큼 큰 곳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1380년 왜구의 노략질로 인하여 흥해군은 폐허가 되고 수년간 행정력이 이 지역에 미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의 내용은 조선초기의 문신인 권근(權近, 1352~1409)이 기록하였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2권 경상도 흥해군」에 실려져 있다. 권근이 기록한 글에서 보이는 경신년은 1380년, 정묘년은 1387년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아직 조선이 건국되지 않은 고려말이며,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방기능마저 상실되고 있어 왜구의 피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고개를 넘어 동남쪽으로 가면 바다 위 수백 리에 이르는데, 군이 있으니 흥해다. 땅이 제일 끝까지 가다가 막혔는데, 물고기와 소금과 땅이 기름져서 이로움이 있다. 그 옛날 여기서 사는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았는데, 중간에 왜적의 난을 입고 나서부터 점점 메마르고 황폐해져 갔다. 경신년(1380년) 여름에 이르러 더욱 화를 심하게 받아 고을이 함락되고 불타서 백성들이 학살과 약탈을 당하여 거의 없어지고 그중에 거의 벗어난 자는 흩어져 사방으로 달아났다. 마을은 빈터만 남았고 무성한 나무들만 길을 가리니 이 고을 원리(院吏, 원에 속한 구실아치)된 사람도 먼 마을에 가서 살고 머리를 움츠려서 고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지 수년이 되었다. 정묘년(1387년)에 이르러 국가에서 군 남쪽에 병선을 두어 바다와 포구를 통하게 하여 적들이 오는 것을 막은 연후에 떠돌던 백성 중에 고향을 생각하던 자들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성지의 견고함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살지 못하고 산골짜기에 굴을 파고 살면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가 때로 나와서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았으며,

왜적이 쳐들어오면 능히 서로 구하지 못하고 도망해 숨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재(守宰, 수령)들이 먼 마을에 살고 감히 오지 못하기는 전과 같았다.

곡강천과 복천수 조성

광여도 흥해군을 살펴보면 읍치(邑治) 북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복천이라는 하천명도 보인다. 또한 곡강(曲江)은 복천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표기되어 있다. 광여도(廣輿圖)는 19세기 초에 제작된 군현지도(郡縣地圖)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2권 경상도 흥해군」에는 복천에 대한 설명은 없고 곡



〈그림 5〉 광여도 흥해군에 나타난 복천 및 곡강

강만 보인다. “곡강(曲江)은 고을 동쪽 7리에 있는데, 근원은 경주 신평현 마북산(馬北山)에서 나왔으며, 북으로 흘러 고을 북쪽을 지나고, 동으로 흘러 고령산(孤靈山) 아래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마북산은 마북리를 감싸고 있는 산으로 지금은 쾌령산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바닷가인 칠포리에 위치한 고령산은 현재지명으로 곤륜산으로 불리우고 있다.

곡강천은 신평면 마북리에 위치한 비학산(762m) 및 장구재(585.5m)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흘러가다가 사정리에서 신평천과 합류한 후 흐름을 동쪽으로 바꾸면서 계곡을 빠져 나간다. 계곡을 빠져나간 물은 넓은 농경지 구간을 지나가면서 주변 농경지에 물을 뿌려 놓는다. 농경지를 가로질러 흐르다가 다시 계곡을 빠져나간 다음 칠포해변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으로 곡강천의 유역면적은 158.7km²이고, 유로연장은 25.2km이다. 곡강천이 지나가는 행정구역은 신평면과 흥해읍이다. 곡

강천이 흘러가는 지형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분지를 2개를 만들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즉 신평면이 자리 잡은 신평분지와 흥해읍이 자리 잡은 흥해분지이다.

복천수는 곡강천이 신평분지를 지나 흥해분지로 유입되는 입구에 조성된 수목림이며, 복천수를 조성한 이유는 북송정 비중수비(北松亭碑重修碑)에 잘 나타나 있다. 토사를 잔뜩 머금은 물이 계곡을 빠져 나오고 넓은 농경지가 펼쳐지자, 토사를 하상에 떨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하상바닥은 높아지고, 제방을 무너뜨리고 제방을 월류한 물은 읍치로 밀려오는 피해가 반복되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흥해군수 이득강은 제방을 정비하고 복천수를 조성하였으며, 그 이후 흥해읍은 홍수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마을이 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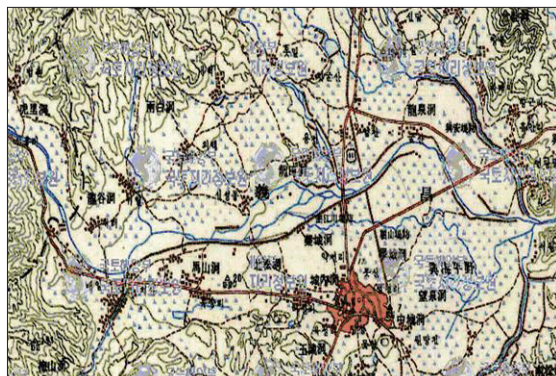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인 1918년 지형도와 광복이후 1964년의 지형도는 복천수를 조성했던 1826년의 지형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지도를 통하여 곡강천의 옛 모습을 살펴보자.

일제 강점기 작성된 곡강천은 하천변을 따라 모래사장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1964년 작성된 지도에서는 하천의 흐름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곡강천에 모래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는 하천정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도 작성방법에 따른 차이점으로 보인다. 우선 1918년 지도를 보면 하천의 흐름이 자유스러워 정해진 하도에 따라 흐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흘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상시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곡강천이 계곡을 벗어나면서 우안을 따라 복천수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곡강천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복천수는 조선 철종때 흥해군수 이득강이 군민들과 함께 조성한 수해방지림이다.

1964년 지도에서는 복천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이는 복천수가 사라졌다고 보다 지도 작성중 복천수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직 신평분지와 흥해분지 사이의 계곡에 1961년 건설된 용연저수지가 표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964년은 지도 발행시기를 표기한 듯하다. 1964년 지도를 보면 아직 물길은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흥해읍 바로 북쪽에 곡강천과 다른 또 하나의 하천이 흐르고 있



〈그림 6〉 1918년 흥해읍 지형도



〈그림 7〉 1964년 흥해읍 지형도

음을 볼 수 있다.

이제 2013년 흥해읍 지형도를 살펴보자. 신광분지와 흥해분지 사이 계곡에는 용연저수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천리 주변으로 여전히 북천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고, 1964년 지도에서 보이던 흥해읍 바로 북쪽에 흐르던 물길은 2013년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곡강천 모습도 상당히 안정을 찾은 모습이다.

옛날지도와 현재지도를 비교함으로써 과거 하천흐름이 자유로운 흐름으로 인하여 하천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고, 하천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곡강천의 하천흐름을 잡기 위하여 조성된 북천수는 하천시설물의 중요한 시설이었으나, 북천수를 조성한 지 100년도 채 안된 1908년에는 생활의 편리만을 목적으로 북천수를 제거하고 도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



〈그림 8〉 1918년 흥해읍 지형도

하여 계획을 무산시키고, 후세사람들에게 북천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북송정비중수비(北松亭碑重修碑)를 세우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현재 북천수는 천연기념물로서만 관리하고 있을뿐, 하천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북천수를 조성한 목적을 알지 못한채 단순한 마을숲으로만 알고 있어 마음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북송정비중수비도 지금은 어디로 옮겨졌는지 확인할 바 없다.

신광분지와 흥해분지사이에 위치한 계곡에는 1961년 용연저수지가 건설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흥해분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곡강천의 홍수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저수지연장은 203m, 저수지 높이는 21m이며 용연저수지의 혜택을 받는 토지면적은 13.42km²에 달한다.



〈그림 9〉 신광분지와 흥해분지사이 계곡에 설치된 용연저수지 (물이 여수로를 윤희하는 모습)

북천수 조성기록

1964년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 하천관리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은 하천상황을 살펴보면 신광분지와 흥해분지사이 계곡을 빠져 나온 물은 곡강천의 우안에 위치한 제방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과거기록을 살펴보면 계곡을 빠져나오는 물에는 토사량이 상당히 많았던 모양이다. 이로 인하여 하상에 많은 양의 토사가 퇴적되고 이로 인하여 흥해읍이 홍수범람 위협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곡강천의 치수사업을 위하여 조선 철종때 흥해군수 이득강이 제방을 보수하고 제방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천수를 조성하였다. 흥해읍이 물 난리로부터 안전한 마을이 되었다고 기뻐하여 1826년 주민들이 군수이득강북천수유허비(興海郡守李得江北川葺遺墟碑)를 북송동(현재 북송리)에 세웠으며, 흥해군수 지홍관이 제방을 보강한 것을 기리기 위하여 주민들이 1874년 군수지홍관청덕거사비(郡守池公弘寬淸德去思碑)를 북송동에 설치하였으며, 이후에도 최재영이라는 사람이 제방을 보강하는 등 북천제방을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던 중 1908년 길을 내기 위하여 북천수를 없애버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북천수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모양이다. 곡강천 제방과 북천수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후세사람들도 절대로 북천수를 없애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북송정비중수비(北松亭碑重修碑)에 담았다.

이와 같이 곡강천의 치수사업은 흥해군이 가지고 있던 오랜 숙원사업이며, 조선 철종때에 이르러 이득강이 흥해군수로 부임하여 북천수를 조성함으로써 곡강천의 치수사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현재에는 신광분지와 흥해분지사이 계곡에 용연저수지를 축조하여 농업용수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저수지 하류부는 홍수로부터 비교적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토사유입도 저수지에 퇴적됨으로 인하여 곡강천 하상이 높아지는 현상도 많이 개선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조상들이 애지중지하던 북천수의 기능은 사라지고 북천수 조성경위는 문헌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로 인하여 하천관리자는 북천수의 중요성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하천관리자들은 우리 선조들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애쓰던 시절

물들을 다시한번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들은 1938년 작성된 「조선의 임수」에 나타나고 있으나 북송동(현재 북송리)에는 비석 및 정자는 없으며, 비석은 1983년 포항시에서 영일민속박물관을 개관하면서 비석들을 모아 이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군수이득강북천수유허비(興海郡守李得江北川葺遺墟碑)”만이 영일민속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수이득강북천수유허비”에 실려져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흥해군 북쪽 큰 시내가 범람하여 논밭이 침수되었는데, 해안가에 있는 읍터는 마치 병(瓶)을 세워놓은 것과 같았다. 그러나 홍수를 만나면 붕괴되는 재난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만명의 장정에게 부역을 하도록 하여 모래와 자갈을 모아 제방을 쌓았으나 오래가지 못하였다. 이득강 공이 임술년(1802)에 관리로 부임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공사를 감독하며 고하기를 “백성들의 힘을 덜어주고 수해를 막는 방법은 숲과 같은 것이 없다”라 하였다. 이에 나무를 심어 기르면서 베지 못하도록 하였다. 잡풀을 베고 나무를 심어 수십 년이 지나자 숲의 나무들은 짙어 어린 가지는 아름다워나 되고 성글었던 것은 뽕뽕하게 되어 즐비한 모습이 높은 성이나 큰 울타리와 같이 되었다. 물길을 막고 끊은 것이 거의 10여리나 되었다. 백성들이 고무되고 고을이 힘을 입게 되었으니 돌아보건데 공의 공적은 위대하지 않은가? 읍에서 일을 주관한 사람들이 그 공적을 오래 전해지도록 도모하고, 숲의 나무를 베고 비석을 사서 그 일을 기록하였다. 아!



〈그림 10〉 군수이득강북천수유허비

어찌 공의 공적이 썩어 없어지겠는가?

송정(崇禎) 기원후 네 번째 병술년(1826) 남지월(南至月; 11월) 25일

“군수지홍관청덕거사비(郡守池公弘寬淸德去思碑)”는 지홍관이 흥해군수 재직시 북천의 제방을 보수한 공덕을 기려

고종 11년(1874년) 북송동에 세워진 비석으로 일제 강점기까지만 해도 북송동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읍과 이 전답이 매번 무너질까 걱정하여 큰 침수에 대비하여 옛날의 제방을 따라 제방을 완공하였다. 진양(晉陽)을 막아 전답이 고을에 가득하니 이것이 누구의 힘인가? 이에 비석을 세워 후세에 드리운다.

동치(同治) 13년 갑술(1874)에 세우다.

“북송정비중수비(北松亭碑重修碑)”에 따르면 북천수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던 송정(松亭)이라는 정자가 세워져 있었으며, 정자아래에 북송정비중수비를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천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후세사람들도 절대로 북천수를 함부로 베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담고 있는 비석으로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북송동에 있었으나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

읍은 상류(象流)가 동으로 모이는 요소에 있어 항상 냇물이 넘치고 모래가 덮이는 근심이 있다. 한번 물난리를 만나면 읍기(邑基)가 무너져서 우(禹)임금때의 연수(兗水), 상(商)나라때의 하수(河水)와 다름이 없었으니 백성들이 그 폐해를 감당할 수 없었다. 군수 이득강씨가 이 고을에 군수로 와서 제방을 쌓고 소나무를 심었다. 소나무가 뻗뻗하고 제방이 견고해져서 우리고을은 백년동안 백성들이 물고기의 밥이 되는 것을 면하였으니 이득강 군수의 공이다. 고을 사람들이 송정의 아래에 비석을 세워 사모하는 마음을 담았다. 군(郡)의 늙은 장교 최재영(崔在榮)이 이어서 쌓아 물난리를 막았으며, 배경환(裴經煥)이 수교(首校)로 있을때에 비각의 길을 똑바로 내려고 돈 80냥을 내었다. 그러나 곧바로 물리치면서 말하기를 “네가 뇌물을 바치는 계획은 소나무를 해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금하는 것만 못하다. 소나무가 장차 없어질 것이니 영원히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다시는 뇌물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라 하였다. 아! 읍은 제방이 없으면 읍이 되지 못하고, 제방은 소나무가 없으면 제방이 되지 못하며 소나무는 사람이 없으면 소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그러하니 이 읍이 물결에 부딪히도

유지되는 것은 앞사람이 심고 기른 공이 아니겠는가? 진왕이 솔숲을 감독한지 여러 해에 솔잎이 우거져서 새가 모여들게 되었다. 거둬 비각을 수리하니 뒷날에 제방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앞사람의 공적을 추모하고 이 소나무와 읍을 보호한다면 곡강의 구석까지 거의 물결에 지탱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금상(金相) 즉위 2년 무신년(1908) 늦봄

북천수 이용현황

북천수는 흥해서부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곡강천 하류로 약 2.5km 조성된 수해방지림이다. 흥해군수 이득강이 조성한 북천수는 4km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64% 정도만 남아 있는 셈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흥해현지도에 따르면 북천수는 흥해서부초등학교에서 시작하지 않고 용연저수지 주변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북천수는 흥해서부초등학교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북천수 중간 중간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북천수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다. 그 중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구역이다. 이곳은 펜스가 쳐져 있고 숲 사이에는 오솔길을 내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동제를 지내는 등 마을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일부 주민들이 산책을 즐길뿐, 이용율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북천수가 곡강천의 범람으로부터 흥



〈그림 11〉 북천수 사이사이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림 1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복천수 조성지역



〈그림 13〉 복천수 사이의 오솔길

해를 지켜낸 중요한 하천시설물인 점을 강조한 비석이 알제시
기에도 이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비석도 모두 이전되
어 행방조차 알 수 없고 복천수에 관련된 정보가 미흡하여 일
반인들은 수해방지림이라는 기능은 알지 못하고 단지 마을숲
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우리 선조가 곡강천의 치수를 위하
여 애써 조성한 수해방지림을 잊지 않도록 하천관리자의 교육
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

